

## 주요기사 해설

2007-08-29 [해외]

- 미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다우, 나스닥지수 큰 폭 하락

28일, 변동성이 다시 월스트리트를 찾아왔다. 미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기에 앞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회의록에는 금리인하를 암시하는 내용이 전무했다.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느끼는 경제 및 신용경색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으며 이를 반영 하듯 다우지수, 나스닥지수를 비롯한 미국 증시의 주요지수가 동반 급락하였다.

AP통신[2007-08-28]

- 아시아 증시, 미 증시와 동반 하락

아시아 증시가 미 증시와 동반 하락했다. 메릴린치가 미국 금융사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낮추자 맥쿼리, HSBC 등의 금융주가 하락세를 보였고, 삼성과 도요타 역시 미국 소비자지수가 지난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자 하락했다. 미쓰비시는 매출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발표이후 하락했다. 타이완 IBT 증권의 류쥬밍씨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금융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특히 아시아권의 수출관련 업체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.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.7%, 홍콩의 항셱지수가 1.3%, 하락한 가운데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.

블룸버그통신[2007-08-22]



